

광주 가정어린이집 '맞춤형 보육 반발' 23·24일 집단 휴원

전체 650곳 "철회" 요구... 1만여명 '보육 대란' 불가피

오늘 기자회견... 민간어린이집 300곳·법인도 저울질

7월 '맞춤형 보육정책' 시행을 앞두고 광주지역 가정어린이집이 23, 24일 이틀간 집단휴원을 예고했다. 광주지역 650여곳의 가정어린이집이 집단휴원에 들어가면 보육아동 1만여명의 '보육 대란'이 불가피하다.

광주지역 민간어린이집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단휴원 동참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고, 전남지역 민간·가정어린이집도 보육교사들에게 단체 연월차 휴가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광주연합회)에 따르면 광주지역 가정어린이집 650곳 전체가 오는 23, 24일 이틀간 집단휴원한다.

광주연합회는 맞춤형 보육정책 전면 재검토와 시행 연기를 요구 중이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맞춤형 기본보육료 인상과 두 자녀 가정의 어린이집 중 일반 이용 허용, 표준 보육료 현실화를 통한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다.

지난 1월 기준 광주지역 전체 어린이집은 모두 1263곳, 보육아동은 4만8784명이다. 이중 가정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아동은 9679명이다.

'맞춤형 보육정책'은 다음달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대상으로 전입주부를 포함한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 시간을 1일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외벌이 가정 영아에 대한 보육 차별, 보육

시간 감소로 인한 보육료 20% 삭감,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육 질 하락, 종일제로 채워진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보육료 삭감으로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과 3자녀 이상 가정에겐 중일반 혜택을 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용직과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근무 상황을 입증하기 힘든 게 현실이고, 1가구당 평균 자녀가 1.7명 수준인 상황에서 3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300여곳의 민간어린이집도 집단휴원 동참에 대해 내부 조율 중이다. 국공립, 직장, 법인 어린이집 등은 오는 23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보건복지부의 간담회 결과를 지켜본 뒤 집단휴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광주어린이집총연합회는 20일 오전 11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비상대책회의를 여는 전남어린이집총연합회는 보육교사들에게 단체 연월차 휴가를 주는 축소 보육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현경 광주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정부의 맞춤형 보육정책은 결과적으로 보육질 저하로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으면 집단휴원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내 미래는"... 고교생들 진로 찾기 광주·전남 교육청과 전남대가 진행한 '2016 광주·전남 진로·진학 체험 박람회'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전남대에서 열렸다. 지역 고등학생, 학부모들은 이날 박람회장을 찾아 전공 상담(84개 학과)·체험, 진학 상담·특강과 학부모 대상 컨설팅 등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 도심 차량 제한속도 9월부터 시속 60km로

광주지방경찰청이 광주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통일했다.

그동안 빛고을대로(계수4거리~담양경계·10.6km), 무진대로(운수IC~광전5거리·9.2km), 상무대로(도산동~임동5거리·12.7km) 일부구간의 제한

속도가 시속 60~90km로 들쭉날쭉해 운전자들의 혼선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학교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생활도로 등 교통사고위험이 많은 장소는 시속 30~50km로 제한하는 현행을 유지한다.

또 도시고속도로인 빛고을대로의 유촌2교~동림IC 구간은 시속 90km, 동림IC~신용지하차도 구간은 시속 70km, 신용지하차도~담양경계는 시속 80km로 제한속도가 달랐지만 전 구간에 대해 시속 80km로 통일했다.

광주경찰청은 오는 8월31일까지 광주도심 곳곳의 전광판을 통해 바뀐 제한속도를 홍보한 뒤 9월부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병문 전남대 총장 "직선제 수용 불가"

"재논의 해달라" 공식 입장... 교수회, 내일 대응 방향 논의

지병문 전남대 총장이 '총장 직선제'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내놓았다. 총장 선출과 관련된 첫 공식 입장으로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전남대 교수회(회장 김영철 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 총장은 지난 16일 열린 교수회 평의회에 참석, 차기 총장 선출 방식과 관련 "직선제 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지 총장은 교수회가 총장 선출 방식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놓고 명확한 입장을 요구한 데 따라 이날 교수 평의회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대학 교수회가 지난 4월 총투표를 거쳐 제안한

'총장 직선제 선출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지 총장은 그동안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고민해왔다.

다만, 교수회 안팎에서는 지 총장이 '현행 간선제 유지 여부' 등 구체적 언급 대신, "다시 한번 논의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들어 사실상 '2차 교수 총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특히 전체 교수들의 투표 결과와 전국 최초로 총장 직선제 투표를 실시한 상징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비판성 담화문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전남대 교수회측은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향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사립학교, 교육청 교사 채용 위탁방안 '부정적'

박정열 사학법인 이사장협의회장(우석학원 이사장)은 최근 광주 A사립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 "(사학법인들이) 투명성을 담보할 책임 경계를 강화하겠다"면서도 교육청의 '교사 채용 위탁 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광주시교육청이 조만간 내놓을 '교사 채용시업 위탁' 등 사학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맞물리면서 관심이 쏠린다.

박 협의회장은 19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채

용 비리로 인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오는 30일 초·중·고 법인이사장협의회 인사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통해 최근 알려진 일부 사학법인 채용비리에 대한 입장 및 향후 운영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나 광주교육청의 사립학교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사 채용 위탁 요구와 관련, "사학의 건학 이념을 존중하고 학교별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28, 해넘이 19:50, 달일 05:10

당분간 우산은 '필수'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흐려져 비가 내리겠다.

◇ 지역별 날씨 (℃)

광주	21/30	보성	21/29
목포	22/27	순천	22/29
여수	22/26	영광	21/28
나주	21/30	진도	21/28
완도	22/28	전주	21/31
구례	21/30	군산	21/28
강진	22/29	남원	21/31
해남	21/29	홍산도	19/24
장성	20/29		

◇ 바다 날씨

지역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남동~남	0.5~1.0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남동~남	0.5~1.5
남해서부	남~남서	0.5~1.0	북동~동	0.5~1.0
	남~남서	1.0~1.5	북동~동	1.0~2.0
남해서부	남~남서	1.0~1.5	남~남서	1.0~1.5

◇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높음: 자외선
- 보통: 피부질환

◇ 주간 날씨

날짜	날씨
21(화)	☁
22(수)	☁
23(목)	☁
24(금)	☁
25(토)	☁
26(일)	☁
27(월)	☁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사랑이가 꿈꾸는 집, 여러분과 함께 짓고 싶습니다.'

◇ 컨테이너박스에 살던 7식구에게 갑작스럽게 날아든 퇴거 통보

배경조기가 침동되는 청마소 안의 컨테이너 박스. 이 곳이 바로 사랑이네 집입니다. 배경조기로 인해 하얀 미세먼지와 소음에 시달리며 호흡기질환을 달고 살던 사랑이네 가족, 방랑도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아 여름엔 곰팡이와 싸우고 겨울엔 추위와 사투를 벌이던, 그래도 7남매의 웃음과 행복이 피어났던 집이었습니다.

◇ 사랑이네 가족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엄마, 아빠의 피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 그리고 남 거친 수천만원의 빚, 빚을 갚으려, 아이들을 먹여 살리며 만삭의 몸으로 사랑이 엄마는 아빠와 함께 밤에 나갑니다. 게다가 선천성 백내장을 가진 사랑이의 3도 화상을 입은 막내 3살 마음이의 치료까지 막대한 비용입니다.

◇ 외부에 임시로 판매를 뜻대어 틈새 공간을 마련한 사랑이네 집

우리 떠날 가족은 살기 위해, 외딴촌에 집 마당에 임시 판매로 5평의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외부와 다를 바 없는 판매 집은 집이라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콘크리트 바닥과 배추 튀어나온 빨간 벽돌에 3살 마음이가 언제든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입니다.

◇ 동생이 너무나 너무 좋아요,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후원자님,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보내주시 후원금은 사랑이네 주거신속비 및 생계비로 사용되며, 참여해주신 후원자님께 입주시에 초대합니다. 본 캠페인에 참여해주신 후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용됩니다.

◇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6살 사랑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랑이는 동생들을 돌보느라 정신 없는 엄마를 도와줍니다. 고스리 같은 손으로 척척 빨래를 개고, 식사시간이 되면 숟가락, 젓가락을 척척 놓습니다. 사랑이의 별명은 '신사원장', 6살이지만 마음은 훌쩍 커버린 아이입니다.

◀ 후원 및 자세한 사항은 코드를 찍어주세요

QR 코드: 후원계좌 : 어린이재단/농협/301-00816148-1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 문의. Tel. 061-274-0041 / 061-921-4397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68년 동안 국내·외 아동들을 위한 아동복지서비스(생존·보호·발달·권리옹호)를 수행 해 온 국내 최대의 아동복지전문기관입니다.